

청년 퀴어 예술가의 생존과 활동의 지속가능성

•

퀴즈(q's) : 권아람, 이동경, 이세연, 장수정, 허원

청년 퀴어 예술가의 생존과 활동의 지속가능성

퀴즈(q's) : 권아람, 이동경, 이세연, 장수정, 허원

목 차

I. 서론

연구를 하게 된 계기
퀴어 창작자 모임 퀴즈
실종된 '청년 퀴어 예술가' 담론
연구의 내용, 방법, 결과 분석 및 결과물 활용 방안

II. 본론: 청년 퀴어 예술가 인터뷰 분석

1. 각 심화 인터뷰 대상자들의 특이점과 공통점
청년 빈곤 문제와 작업의 연결: '예술가'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정체성 인식으로 말미암은 시스템과의 충돌: 은폐와 발화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말하며 세상과 만나기: 발견과 변화
2. 퀴어 정체성에 따른 고민
커밍아웃: 존재에 대한 불안과 확신 사이에서 밖으로 걸어 나오는 일
제도와 시스템, 편견과 분위기를 넘어 다양성이 기본값인 환경과 동
료의 필요성
"너 퀴어라며?": 꼬리표 붙이기와 프레임/범주화
일상생활 속에서 매순간 감각하는 '나는 다르다'는 인식
3. 삶과 작업의 연관성 및 비평의 한계
'퀴어'가 '청년'과 '예술가'를 만났을 때: 복잡한 한 존재의 결
'존재인식'으로 그치는 퀴어 예술·예술가 비평의 한계
소개, 제작, 발표: 매순간 스스로를 설명하고 받아들여질까 거부당
할까 고민하게 되는 일
각각이 가진 특이점과 창조성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
'퀴어'라는 의미의 확장: 나를 발견하는 동시에 너를 발견하는 일

III. 결론

서로를 주목하고 다르게 호명하기: '퀴어' 네트워크·커뮤니티·
플랫폼·정책의 필요성
예술가로서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정책과 제도 앞에서
가능성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일: 지지기반 구축
자생력을 갖고 함께 사는 일: 공동 프로젝트와 다장르·다정체성
융합과 만남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청년 퀴어 예술가의 실천

연구를 하게 된 계기

2~30대 청년 예술가에게 생존과 활동의 지속 가능성은 보편적인 화두일 것이다. 퀴어 작업자들은 이에 더해 성정체성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청년 예술가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서울시가 전 부서에 ‘젠더 담당관’을 두겠다고 발표한 2017년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게이군인을 색출’하는 나라이며, ‘페미니스트’이기는 하지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는 ‘아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나라다. 서울시의 ‘젠더 담당관’이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교육의 내용 역시 ‘시스젠더 여성’에 포커스를 맞춘 단일한 내용이 다수이며, 청년 예술가 지원 정책이 서울시의 ‘사회공헌’ 혹은 ‘소셜 디자인’에 이용되었다는 비판 내에도 ‘퀴어’ 혹은 성정체성을 중점 의제로 다루며 대안을 제시하는 담론은 없다.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단일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신을 표현하는 이는 즉시 성희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한국사회에서 ‘퀴어’는 비/자발적으로 투명인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커밍아웃을 하는 순간, 그의 삶과 작업에는 ‘퀴어’라는 꼬리말과 차별, 시스템 내 계급 불평등, 성희롱, 따돌림, 자기검열, 테러 위협 등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갈수록 절박해지는 상황에 기대어 여전히 ‘홍행’ 중인 청년 담론과, 실제 창작자의 상황과 작업 장르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되기를 반복하는 ‘청년 예술가 지원 정책’을 이야기할 때 ‘청년+퀴어+예술가’의 관점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퀴어 창작자 모임 퀴즈

퀴즈q’s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여성 퀴어 창작자 모임활동을 이어오며, 퀴어 정체성을 가진 2~30대 예술가들과 만나왔다.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며 고민을 나누기도 했고, 기존의 작품들을 함께 감상하며 ‘퀴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해석의 폭을 넓혀보기도 했다. 만남을 지속할수록 동세대의 다른 퀴어 예술가들이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삶을 이어나가고 작업을 지속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어졌다. ‘퀴어’라고 스스로를 정체화한 후부터, 주변부와 세계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 상황을 지켜보면서 청년 담론 내에 없는 ‘퀴어-예술가’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기록해둘 필요성 또한 절감했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청년 퀴어 예술가의 실제 고민과 경험을 나눌 커뮤니티와 자료가 부족해 이들이 삶에서 위기를 겪을 때 도움을 청할 창구를 찾기 어렵다. 우리는 동세대 작업자들의 삶을 기록/연구함으로써 헬조선 ‘청년 퀴어 예술가’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정책의 가능성을 찾아보려 한다.

실종된 ‘청년 퀴어 예술가’ 담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내 여러 지표 가운데 청년의 성정체성 항목은 없으며, ‘청년+예술가’ 키워드로 검색한 학술 자료 중 어느 것도 퀴어/성소수자/성정체성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더구나 ‘2~30대(청년)+퀴어+예술가’를 다룬 학술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퀴어 미술전, 퀴어 영화 등 특정한 작업을 기반으로 언론사에서 진행한 단발성 인터뷰를 몇 건 찾을 수 있었지만, 작업물의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 연구의 절대적 수가 부족하고, 퀴어/성정체성 논의를 다루더라도 계급적으로 편향된 경우가 많았다.

2015년 청년허브 연구 결과물인 「2015년 청년 성소수자 인식 실태조사 및 청년 성소수자 활동가 당사자의 욕구조사」와 2016년 청년허브 연구 결과물인 「청년세대」담론 속에 없어진 ‘청년퀴어’의 삶 드러내기: 청년으로서의 독립, 퀴어로서의 불안에서 다룬 인터뷰이의 직업 또한 인권활동가,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층적 퀴어 청년의 삶을 드러냈다고 할 수 없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반화된 비정규 계약직과 불안정 노동은 문화예술계 내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문화예술계에서 ‘청년’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예술가들의 큰 화두다. ‘주5일제’로 근무하지 않는 대부분의 청년 예술가들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예술창작 첫 단계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가 지원 사업과 창작지원금 사업에서 지원과 탈락을 반복하는 동안 이들은 아르바이트와 부업을 오가며 근근이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퀴어’ 예술가는 최초예술지원 사업이나 신인상 지원 시 ‘퀴어’를 노출시켰다가 아웃팅을 당하거나 부당한 탈락 혹은 배제를 겪지는 않을까 자기검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청년 퀴어 예술가’에 대한 개별적 사례와 경향을 분석, 연구하는 작업은 그간 ‘청년 예술가’라는 포괄적인 프레임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었던 정체성과 노동환경, 계급과 정책, 청년 생애주기의 문제 등의 실마리를 푸는 단초가 될 것이다.

연구의 내용, 방법, 결과 분석 및 결과물 활용 방안

1) 사전조사

퀴즈는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청년 퀴어 예술가’의 범주를 고민하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만나게 되었다.

① 첫 번째 문제 - ‘청년’, ‘퀴어’, ‘예술가’의 범주 정하기

우선, 사회·문화적으로 약속된 각 단어의 범주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 번째로 ‘청년’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법률적 범주는 보통 19세에서 39세에 적용되지만 어떤 정책과 법이냐에 따라 제각기 다르며, 제도적으로는 ‘만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어 취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년이 아닌 경우도 있다.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청년기, 이행기 청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고민하는 과정에 있으며, 약속된 숫자, 즉 ‘연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퀴어'이다. '퀴어'의 범주를 연구하기 위해 그 정의를 탐구할수록 복잡성과 모호성은 증폭되었다. '퀴어'는 본래 동성에 혐오를 일컫던 단어로, 이를 성소수자들이 전복적으로 사용하여 성소수자 스스로 자기규정을 할 수 있도록 약호전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¹⁾ 레즈비언이나 게이 등의 단어가 자신을 설명하는 데 제한적이라고 느낀 사람들은 '퀴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퀴어'는 기존의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특정 단어들보다 확장된 의미로 쓰였으며, 동시에 성소수자들의 개별적 차이 드러내기를 수행했다. 이후 '퀴어'는 스톤월 항쟁과 게이 해방 전선, 그리고 에이즈 운동을 거치면서 고정되지 않고, 생동한 기표이자 운동(movement)으로서 성장해왔다. 현재 '퀴어'라는 용어는 과거 게이·레즈비언 이론의 범위와 목적을 수용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면서도 잠재적으로는 '정상적인 것'(the normal)에 대한 도전을 지향하는 개념이 되었다.²⁾ '퀴어'는 성, 젠더, 섹슈얼리티의 규범적 통합을 문제화하며 정체성, 공동체, 정치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방식에 차질을 준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도 결정되지 않으려 함으로써 퀴어는 정상성을 구성하는 모든 것에 대해 저항적인 관계를 유지한다.³⁾ 그러나 '퀴어'가 사회의 정상성이라 일컫는 다양한 목표들에 대해 저항하다 보니, 퀴어에 관한 대중적 인식은 많은 경우 부분적이어서 이를 일반적 정의로 삼기 어렵다. 우리의 인식으로, 현재 사용되는 '퀴어'는 그 태생부터 지금까지 소수자들이 축적한 저항의 역사를 함축한 기표이며, 동시에 그 기표로서의 정의는 명쾌한 사회학적 지표로 나타낼 수 없다고 보았다.

물론, 앞선 '예술가' 개념 역시 이 연구에서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자격이나 범주를 찾아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어떤 작업은 예술이고 어떤 작업은 예술이 아닌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 '타투'의 경우, 한국에서는 의료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타투를 예술이 아닌 (불법적) 기술로 보는 사회적 시선이 있고, 타투리스트는 예술가로 자신을 설명하는 데에 주저할 수 있다.

또한 세 키워드 중 일부가 결합했을 경우, 복합적인 질문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퀴어 예술가'란 누구라 말할 수 있을까? 예술가의 작품이 퀴어적 정체성을 가졌을 때, 그가 바로 퀴어 예술가일까? 혹은 예술가인 당사자가 퀴어적 정체성을 가졌을 때, 그를 '퀴어 예술가'라 부를 수 있을까? 퀴어적 정체성을 가진 예술가라 할지라도 작품에 퀴어적 재현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범주화해야 할까?

결국 누가 청년 퀴어 예술가인지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이나 개념 정의에 오롯이 달려 있거나, 혹은 청년 퀴어 예술가 자신에게 그 기준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범주화하고 설정하든 우리 스스로에게 충분한 공감 및 납득이 되지 않았다.

② 두 번째 문제 - 청년 퀴어 예술가 만나기

이 사회에서 커밍아웃한 예술가는 흔치 않다. 그렇기에 각 예술 분야에서 퀴어 정체성을 가진

1) 마리타 스테르른 · 리사 카트라이트, 『영상 문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 2012, 52쪽.

2) 김주원, 『퀴어 미술에 나타난 성 정체성과 그 사회적 의미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16, 14쪽.

3) 애너매리 야고스, 『퀴어이론』, 박이은실 역,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2, 158쪽.

것으로 ‘짐작’되는 예술가들을 연령대 및 세대별, 분야별, 젠더별 리스트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리스트업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은 결국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로, 어느 정도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냈으며 대외적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진행하는 예술가들이 대부분이었다. 조사 결과 그들은 예상보다 연령대가 높았으며, 그들의 퀴어 정체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게이로 ‘짐작’한 경우, 그가 바이섹슈얼, 판섹슈얼 등 다양한 퀴어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 특정 정체성에 치우친 퀴어 예술가들의 명단을 가지고 아웃팅이나 오해의 불씨를 안고 문을 두드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또한 애초에 ‘청년’을 나이 등으로 범주화하지 않았으나 ‘알려진, 40대의 예술가’는 청년 예술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들 이외 소수의 청년 퀴어 예술가는 우리의 지인에 해당되었다. 결국 범주와 함께, 만남의 방법 또한 고민해야 했다.

“누가 퀴어인지, 무엇이 퀴어한지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이브 코소프스키 세즈윅⁴⁾

부분적으로 퀴어는 필수적으로 비확정적이기 때문에, 세즈윅은 한 인터뷰에서 “자기 자신을 ‘퀴어’라고 부르는 행동은 스스로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사이의 차이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어떤 의미에서 퀴어는 오직 일인칭에서만 쓰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퀴어가 이미 기술적 용어로 흔히 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실증적 관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자기식별’을 가리킨다는 점을 강조한다.⁵⁾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청년 퀴어 예술가의 자기기술을 중요히 다루므로, 연구자의 제한이나 범주화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청년’, ‘퀴어’, ‘예술가’ 세 가지로 호명할 수 있는 분—단, 다층적 퀴어의 삶 중 하나로서 청년 퀴어 예술가의 삶을 탐구하고 싶기에 작품의 퀴어성이 아닌 예술가 본인이 퀴어 정체성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전 설문조사(〈별첨1〉) 및 대면 심화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청년/퀴어/예술가 3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이들의 생애주기와 노동환경, 작업환경, 작업 내용, 경제력, 커뮤니티 소속감, 아웃팅과 커밍아웃에 대한 위협이나 불안이 삶에 미치는 영향, 자신의 퀴어성이 예술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청년 퀴어 예술가’들의 현실 구성 조건을 선별하고 관련된 기사와 인터뷰, 영상, 학술자료 등을 모아 질문 목록을 작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자신을 ‘청년 퀴어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에 참여케 한 후, 이중 심화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2) 심화 인터뷰 및 결과 분석

4) 애너매리 야고스, 앞의 책, 154쪽에서 재인용.

5) 애너매리 야고스, 앞의 책, 154쪽.

심화 인터뷰는 인터넷 설문 조사에 응답한 31명 중 5명의 인터뷰이를 선별하여 진행했다.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창작자들, 일과 창작을 병행하며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창작자들 등 생애주기, 노동환경, 작업 분야, 성별, 정체성 등이 각기 다른 창작자들을 선별해 진행했다. 인터뷰이의 생애사를 통해 경험적 차이를 드러내는 데에 집중하기보다 '왜' '어떻게' 그러한 경험을 겪게 되는지, 사회 내에서 차별의 맥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 알게끔 맥락 중심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는 '청년 퀴어 예술가'가 역사·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내는 과정이 되었고, 이를 통해 지금 이곳의 청년 퀴어 예술가의 삶과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우리는 사전 설문조사를 토대로 2017년 한국에서 '청년 퀴어 예술가'의 삶을 구성하는 주도적인 키워드와 양상은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겪는 성장 경험과 만남 속에서 퀴어 변수는 얼마나 어떻게 작용하는지 맥락화해 분석했다. 다만, 커밍아웃이 용이하지 않은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창작자가 드물고, 인터뷰이의 리스트는 아웃팅의 우려가 있어 이니셜로 표기했다.

3) 결론도출

우리는 사전 설문조사, 심화 인터뷰, 결과분석을 토대로 그다음의 가능성을 상상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단일한 방식의 구별짓기를 벗어난 관점을 추구하며 일반화시키는 방향의 도출을 지양하였기에, 청년 퀴어 예술가가 가지는 예민한 결을 적극 드러낼 수 있었다. 이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참고 지표가 될 것이다.

4) 연구 결과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에 참여한 청년 퀴어 예술가들의 작업 특성이 살아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포럼 등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청년 퀴어 예술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모집해 관련 이슈를 가시화하거나 인터뷰 내용을 책과 같은 2차 저작물로 재구성해 아카이빙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청년 퀴어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포럼, 인터뷰 책 등으로 많은 이들이 '청년 퀴어 예술가'들의 존재와 청년 연구 사업의 유무를 알게 되고 당사자 간 자발적 네트워킹의 장이 마련된다면, 이는 충분히 청년 퀴어 예술가 담론의 씨앗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본론: 청년 퀴어 예술가 심화 인터뷰 분석

이름(정체성)	나이	작업 분야	심화 인터뷰 선별 경위
A(범성애자 청년)	29	미술, 영상	커밍아웃을 했으며, '자신'을 작업의 재료로 삼아 퀴어 관련 주제로 작품 활동 중. 퀴어를 주제로 한 예술작업에의 적절한 피드백에 대한 고민이 큼.
B(바이 섹슈얼)	34	문학, 영상, 퍼포먼스	젠더/인권 감수성을 기반으로 다매체를 활용하는 팀 작업자들과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해왔으며, 다수의 예술현장과 예술지원 사업을 경험함.
C(게이)	23	문학, 미술	비 예술대학권 재학 중이며 소설 창작 활동 중. 퀴어의 의미 확장과 비 예술대 학생으로서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고민함.
D(안드로진 여성애자)	23	영상, 사진, 문학	현재 자신의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작품을 제작 중이며, 해당 작품을 통해 제작지원 제도를 경험함.
E(MTF 트랜스젠더)	20	문학, 연극, 비평	자신의 정체성과 작업 간 연관성을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고, 창작자로서 작품을 공개할 기회나 방식에 대한 고민이 큼.

1. 각 심화 인터뷰 대상자들의 특이점과 공통점

심화 인터뷰 대상자 5명과의 대화를 통해 퀴어가 만난 청년 퀴어 예술가의 특이점과 공통점을 나누어보았다. 특이점은 각자의 젠더와 세부 작업 분야, 창작환경에 따라 미묘하게 달랐으며, 공통점은 세 가지 정도였다. 첫째는 청년 퀴어 예술가의 작업이 은폐(침묵)와 발화(활동)를 오가며 생겨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러한 은폐와 발화가 '청년'이라 특정된 세대의 불안정성과 '예술가'라는 자기호명, '퀴어'라는 소수자 정체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그렇게 복잡한 레이어가 쌓여 빚어진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기존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각자의 예술적 발화 방식으로 말하기를 선택한 청년 퀴어 예술가들에게 현 시스템과의 충돌과 불청객으로서의 스스로를 끊임없이 인식하며 나아가는 과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짧지 않은 대화를 통해 돌아보면, 이들은 불안정성의 기반 위에서 내내 부딪치고 흔들릴지언정 사회가 '청년', '퀴어', '예술가' 세 범주에 쉽 없이 부여하고 있는 이미지와 역할에 쉽게 순응할 생각이 없다. 취준생·소수자·판따라 등 사회가 '잉여'로 분류하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폭력적인 호명에도 반발한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의 삶과 지금 여기 너머의 불투명한 미래를 동시에 상상하고 살아가야 하는 청년 퀴어 예술가들에게 모순과 슬픔, 말함과 말하지 않음의 공존,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는 다성적 삶의 풍경, 대개의 사람들이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과 이면에 대한 발견은 삶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귀한 자양분이자 삶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질문이 된다. 청년 퀴어 예술가는 이 복잡한 가로지름 속에서 말한다.

청년 빈곤 문제와 작업의 연결: '예술가'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퀴즈가 만난 5명의 청년 퀴어 예술가들은 공통적으로 자본과 네트워크의 결여, 동료와 퀴어 비평을 찾기 어려운 현실, '청년+퀴어+예술가'를 고려한 제도와 정책의 부재에 대해서 말했다. 그 중 가장 많이 얘기된 것은 빈곤과 수입의 불안정성에 대한 것으로, 청년세대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빈곤 문제 역시 청년 퀴어 예술가들에게도 절실한 문제 상황이었다. 그런 문제 지점을 A의 경우처럼 예술작업의 동기나 주제로 연관시키는 시도도 있었다. A는 스스로의 불안정한 삶과 날 것의 현실을 감추기보다 이를 작업에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예술가'라는 승인이나 '작품'이라는 인정호명 없이 '인간'으로서의 불안과 궁핍함,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돈이 없는 것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늘 있어요.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알바를 하면서 그런 감수성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현실과 동떨어지게 형식적으로 나오는 작품들(오브제)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고, 오브제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 때도 일상적인 것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공상맞음이나 궁핍함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활을 책임지려니 일을 하느라 작업이 끊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박탈감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내 생활을 작업에서 모두 보여주자.' 라는 심정도 있었어요. (...)

성 노동을 작품의 소재로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졸업한 이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던 건데, 호기심도 있었어요. '성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건 만남이라는 걸 했던 건데, 그러면서 저에게는 어느 정도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A)

정체성 인식으로 말미암은 시스템과의 충돌: 은폐와 발화

A의 경우처럼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서 비롯된 질문들을 각자의 발화 방법으로 말하기를 선택한 예술가들에게 현 시스템과의 충돌과 '불청객'으로서의 스스로를 인식하는 과정은 불가피하다. '청년 퀴어 예술가'와 '사회 이슈가 주요의제인 여성 활동가' 두 정체성을 모두 가진 B의 경우, 사회운동 현장의 남성적 규범 안에 있을 때는 창작 작업을 하는 본인의 젠더와 정체성에 대해 말하지 않거나 '청년 퀴어 예술가/여성 작업자' 정체성을 숨기기도 했다.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 얻게 되었고, 동료 작업자들과의 네트워크도 활발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은 무의식적 여성/소수자 혐오와 마주치는 과정이기도 했다. 말함과 말하지 않음, 활동과 활동하지 않음에 대한 고민이 매순간 B를 가로질렀다.

사람들이 저를 활동가로 보는 건 좋지만, 글 쓰는 사람이나 작업자 여성으로 분류하는 게 싫더라고요.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져서 그렇지만요. 저는 차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는데, 그런 취향을 말하는 걸 스스로 경멸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 웃이나 머리 스타일에 관해서도 '사람들이 여성스럽다고 느끼는 걸 하지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것조차도 억압인 것 같아요. (...) 목소리나 말투, 취향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었어요. 누가 'B는 꽃을 좋아하나 보다' 이러면 '꽃 안 좋아해요' 그랬어요. 그런 걸 듣기 싫은 거죠. 왠지 꽃 선물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 꽃을 정말 좋아해요. 꽃이 좋고, 차가 좋고, 명상이 좋고, 시끄러운 거 싫고, 산책이

좋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귀여운 게 좋아요. 왜인지 그런 모든 취향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긴 한 것 같아요. 3~4년 전까지도 부정하려 했던 것 같은데, 아예 잠금 해제해버렸죠. '진짜 귀엽지 않아요?' 마음껏 말했어요. 억압된 마음을 아예 풀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B)

E는 자신의 정체성과 밀접한 창작물을 발표하고 싶어도 그럴 기회와 연결고리가 없는 현실과 제도적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현재 E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도 청년 퀴어 예술가가 지지와 비평을 얻을 수 있는 공식적인 지면이나 공간이 현저히 적으며, 사람들의 공감대나 인식도 낮은 편이라고 했다.

작품을 발표할 지면이나 극을 상연할 공간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물론 공감대 문제도 작용하죠. 제가 지금 처해 있는 학교라는 환경에서는 작품을 보여줬을 때 친구들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은 보여주기 쉽지가 않아요. 공개적으로 올리지도 못하고요. 서사창작과나 극작과, 연출과 등 다른 학과의 경우는 회지도 만들고 공연도 올리니까 그런 경로로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있죠. 제가 속한 연극학과는 비평을 주로 다루는데, 저는 비평만 하는 게 아니니까 애매한 거죠. 만약 다른 학과의 경로를 이용해 발표하려면, 그 학과로 부전공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E)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말하며 세상과 만나기: 발견과 변화

내성적인 성격으로 친구를 만나기보다 혼자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하던 B가 스스로의 작업과 발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만남의 가능성 속으로 걸어 들어간 계기는 대학원에서 조교로 일하며 문학을 공부하고 있을 즈음인 2009년에 벌어진 용산 참사와 그 이후에 시작된 비정규직 조교 투쟁이었다. B는 이 과정을 통해 만난 것들로 인해 다른 발화/활동 방식을 고민하게 된다.

2008년에 대학원에 갔는데, 다음 해에 용산 참사가 있었어요. 대학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용산 참사랑 세월호는 어떤 변환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도시 한가운데서 사람이 불타 죽기 전까지 서울은 저한테 그런 도시였어요.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책을 읽을까?' 궁리하면서 세계가 어떨고 그런 말을 하다 뉴스를 틀었는데, 서울 도시 한가운데서 사람이 불타 죽고 있는 거예요. (...) 이후에 학기 시작하고, 비정규직 조교 투쟁이 있었어요. 용산 참사는 겨울이었고, 비정규직 투쟁은 봄이었어요. 그래서 더 기억이 많이 나요. 그 이후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용산 참사가 없었으면 저도 천막 가서 쭈뼛쭈뼛 인사 못했을 것 같아요. 행정동과 인문동 사이에 있는 그 천막을 사람들이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 그게 제가 제 안에서 나온 계기인 것 같아요. 나오고 나니 '글 쓰는 거 정말 외로운 작업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제 안에서 나오니까 더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랑 만나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쓰면 모드 전환도 안 되면서 외롭잖아요. (...) 그래서 이후에 미술 교육 하면서 즐거웠고, 그러다 이주민 문제를 다루는 예술단체에서 2년 정도 일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2012년부터 지역에서 영화제를 시작해 천천히 영화 틀었어요. 같이 그림 작업하고, 영화도 만들고, 영상에 퍼포먼스도 하면서, 천천히, 하나씩 해본 거죠. (B)

C 역시 B와 같은 고민을 시작해 올해 독립출판으로 퀴어 출판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C는 기

존 문단이 가진 권력 구조를 벗어나 스스로의 정체성과 작업 내용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을 고민하다 독립출판을 통해 책을 내고, 발품을 팔아 서점에 입고하는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진행했다.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작업의 내용, 제도와 발화 방법을 사유해볼 수 있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출판사에 계속 원고를 보냈어요. 청소년 잡지 같은 곳에는 제 소설이 실린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론 별 성과가 없었어요. 최근까지도 공모전에 투고를 했지만, 제 작품이 뽑히질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직접 책을 만드는 수업을 들었어요. ‘인디자인’이란 프로그램으로 책을 만드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책을 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부터 출판, 판매까지 스스로 해보자고 생각하게 됐어요. 워낙 공모전 등에 뽑히지 않다 보니까 ‘니들이 안 뽑아주면 내가 낼 거야. 내가 디자인부터 유통까지 다 할 거야!’ 같은 반항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독립출판이라는 건 문단 권력과는 상관없이, 문단의 권력 장 바깥에 있는 방식으로 책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판된 책 자체의 정체성과 저의 정체성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
처음에 ‘일단 독립출판으로 책을 내보아야지’ 마음먹을 당시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남들도 다 하고, 쉬우니까 그냥 해보자’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시도 자체가 제게 일종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내서 잘 풀리면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독립출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애초에 평생 소설가를 하려 했고, 죽을 때까지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모전에 초연해진 거예요. 전에는 공모전만 보고 글을 썼다면, 이제는 뽑히든 뽑히지 않든 개의치 않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통로를 찾은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독립출판을 통해 책을 낼 것 같아요. 물론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다른 직장을 구하긴 해야겠지만, 독립출판을 통해서 제 책장에 제가 쓴 소설책들을 하나씩 꽂아놓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C)

그러나 네트워크와 연결고리, 제도와 정책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각개전투만을 기반으로 한 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개의 청년 쿼어 예술가들은 사전 설문조사와 대면 심화 인터뷰를 통해 기존 청년 예술 지원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적은 인원을 선별해 적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몇 개의 장르와 범주에 국한된 지원, ‘소셜디자인’과 ‘사회 공헌’에 집중된 정책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쿼어 예술가’ 혹은 ‘소수자 예술’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기대가 없었다. ‘스스로’, ‘혼자’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다.

2. 쿼어 정체성에 따른 고민

저는 스물두 살 겨울까지는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러다 죽겠지’ 생각하면서 지냈거든요. 막연한 두려움이 컸어요. 되게 외로운 삶을 살다가, 너무 외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쿼어 책모임을 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처음에 동기 두 명한테 커밍아웃을 했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한 10분 동안 “근데 있잖아...”만 하다가 커밍아웃했어요. 그러고 나니 말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즈음 졸업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졸업 작품으로 제 밑바닥에 고여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그걸 말하려면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거죠. 첫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뭐 할 건지 물어보잖아요. 그 자리에서 커밍아웃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은 괜찮는데, 불특정다수의 학교 사람들이 있는 자리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말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소심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달라진 태도를 보이거나 제가 오해하고 상처받을까 봐 걱정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고, 말한 날

다른 학우분이 오셔서 저한테 바이라고 커밍아웃하시는 거예요. '내가 커밍아웃을 하면 이런 경험도 얻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D)

커밍아웃: 존재에 대한 불안과 확신 사이에서 밖으로 걸어 나오는 일

퀴어 창작자에게 자신의 정체성은 작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동시에 공동체 탈락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커밍아웃 이후 재학 중인 학교 혹은 작업 공동체에서 탈락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때도 있다. 학교 내에 소수지만 청년 퀴어 예술가 커뮤니티도 존재하고, 서로의 작업을 이해하는 동료 퀴어 작업자들도 몇 찾았지만, 작업하는 장르의 특성상 제작지원을 받아야 할 일이 있거나 작품 발표를 할 때에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밀접한 작품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일이 잦은 D는 사적인 내용의 작품을 발표함과 동시에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이 난감할 때가 많았다고 했다.

'아저씨 선생님'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상화하는 말들이요. '요즘 커밍아웃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왜 그렇게 떨면서 얘기해?'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제 동기 중에도 퀴어가 있는데, 그 친구도 퀴어 관련 작업을 해요. (...) 그 친구랑 면담할 때, 아까 그 선생님이 '너는 퀴어니까 당연히 드러내야지, 왜 안 드러내려고 해?'라고도 했었어요. '아이템 되게 좋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그런 사소한 일들은 있었지만, 어떤 큰 사건이 있진 않았어요. (D)

제도와 시스템, 편견과 분위기를 넘어 다양성이 기본값인 환경과 동료의 필요성

D의 경우처럼 예술학교 내에서 일부 사람들의 대상화 발언 등의 일이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다름에 대한 감수성에 있어 예술계가 가지는 특수함도 존재한다. 예술계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퀴어 프렌들리(queer-friendly)한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술계 내에서 커밍아웃했던 경험들은 긍정적인 정체성 경험으로 기억되기도 하고, 퀴어가 아니라면 몰랐을 관점들을 새롭게 사유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대면 심화 인터뷰에서 예술학교의 퀴어 프렌들리한 분위기로 인해 커밍아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경험 또한 들을 수 있었다.

한 교수님이 떠올라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딸이 저와 동갑이래요. 저한테 딸뻘이라고 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커밍아웃했어요. 그 연세에 저의 젠더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 외에 정체성 문제가 두드러진 적은 없어요. 커밍아웃이란 게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교수님들의 경우, 여성 문제로 토론하는 와중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 '남학생이 너무 잘 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쾌하잖아요. 한번은 교수님 자체가 여성주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분으로 여겨져 커밍아웃하지 않았어요. 한번은 전공 교수님이었는데, 저보고 '남학생' 운운해서 제가 커밍아웃했더니 바로 발언을 정정하시더라고요. 저는 사과보다 정정이 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해요. 오해란 것도 고쳐질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 같고요. (E)

"너 퀴어라며?": 꼬리표 붙이기와 프레임/범주화

하지만 공개 커밍아웃은 여전히 어렵다. 퀴어 작업자들과 퀴어 프렌들리한 환경에서 개인 작업과 공동 작업을 오래 해온 작업자인 B도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공개 커밍아웃 이후 자신의 작업이나 활동이 ‘퀴어’라는 범주 내에서만 읽히거나 오해받는 등 작업자로서의 다양한 갈래가 차단되어 제한된 목소리만 내게 되는 상황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있었다.

안전하다고 믿는 곳이 아니면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퀴어 이슈에 대해 꾸준히 발언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자괴감이 있지만요. 주위 친구들은 그렇게 예민한 것들을 사유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관련 작업을 하면서 즐거웠고, 올해도 그런 작업을 하면서 해방감을 느꼈는데, 조심스러워요. 퀴어 이슈에 관심이 많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서 연대하는 사람으로서는 평가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로서 접근하면 작품이나 기획 자체로 읽히기보다 ‘퀴어’로만 읽힌다는 것을 은연중에 아는 것 같아요. 반대급부로 ‘퀴어 여성’ 이런 식으로 구분되면서 소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전체적으로 소비적인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펀딩이나 굿즈도 그렇잖아요. (B)

일상생활 속에서 매순간 감각하는 ‘나는 다르다’는 인식

C는 어릴 적부터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왔고, 세상 속 자신을 ‘불청객’으로 인지하고 있었기에 스스로를 당당히 ‘청년 퀴어 예술가’라고 말하는 것에 일말의 고민을 느끼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고, 최근 퀴어 이론 세미나에서의 커밍아웃에서도 퀴어 프렌들리한 반응을 통해 긍정적인 정체성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청년 퀴어 예술가인 스스로를 부정해야 할 때가 많은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편견과 맞닥뜨렸던 C는 본인이 남성 목욕탕에서 느끼는 감정과 위치감각을 설명하기 위해 커밍아웃했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목욕탕에 있는 동안 “목욕탕을 만든 사람은 왜 동성끼리 있을 때는 성애 사건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질문하면서 스스로를 ‘불청객’ 혹은 기존의 사고방식과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이라 느꼈다고 말했다. “이런 구분이 어떻게 가능하지? 왜 구분하지? 나만 이렇게 느끼나? 왜?”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감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C의 매 걸음마다 함께했다.

퀴어 이론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목욕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목욕탕을 남녀로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구분할까?’ 고민해봤을 때, ‘같은 성별끼리 두면 그 공간 안에서는 성애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남/여 구분 목욕탕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길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남자 목욕탕에 가서 씻고, 욕탕에 들어갈 때마다 탕 안에 불청객으로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어요. (...) 제가 목욕탕에 갔을 때, 다른 남성분들의 몸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미묘한 감각들은 저만 알고 목욕탕을 만든 사람은 모르는 거죠. 저 혼자 남들은 모르는 느낌으로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퀴어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려는데, 제가 게이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이 미묘한 감각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애자 남성이 목욕탕을 이용했을 때와는 다른 점들을 설명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사고방식을 교란하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그런데 그런 감정들을 제가 게이인 걸 밝히지 않고 이야기하려다 보니 말이 막히는 거예요. ‘어쩌지’ 하다가 제가 게이라는 걸 밝혔고, 그 세미나는 퀴어 이론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이 전부라 그런지 특이한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퀴어 프렌들리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평소에도 제가 제 정체성을 밝히는 데 큰 거리낌

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훨씬 더 편하게 커밍아웃할 수 있었어요. (C)

3. 삶과 작업의 연관성 및 비평의 한계

‘퀴어’가 ‘청년’과 ‘예술가’를 만났을 때: 복잡한 한 존재의 결

청년 퀴어 예술가는 여느 청년 예술가와 다르지 않은 고민 위에 퀴어 정체성이 더해져 보다 복잡한 결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인터뷰이가 자신의 삶이 반영된 예술작품이 퀴어에 대한 인식의 한계로 적절한 비평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도 제대로 읽히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겪는다고 말했다. 인터뷰이의 대다수가 예술전문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나, 그 안에서도 ‘퀴어 예술 비평’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존재했다.

소수에 해당하는 퀴어 예술은 작품과 방법 자체에 대한 비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칫 소재주의로 빠지거나 유행의 흐름 안에서 소비될 위험성을 가진다. 최근 페미니즘과 함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른 ‘퀴어’에 대한 관심이 반갑지만, 이 흐름은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 퀴어 예술 작품으로 드러낸 자신의 삶이 소비되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예술가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가지게 될 고정 이미지가 삶을 무너뜨리진 않을지 염려하는 작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히려 그렇기에 ‘구체적 삶이 있는, 살아 있는 퀴어’를 어떻게 드러낼지 고민하며 ‘퀴어’의 의미 확장을 시도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존재인식’에 그치는 퀴어 예술·예술가 비평의 한계

예술계의 분위기상 작업에 퀴어 정체성이 드러나면 무작정 부정적 반응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퀴어는 ‘소재’로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에 의미 있는 비평이 드문 편이다. 비평자의 인식과 지식의 한계가 곧 비평의 한계가 되어 그 악영향은 오롯이 작업자가 떠안는 경우가 많다. A가 언급한 대로 현재 퀴어 예술 작품과 예술가 비평은 ‘퀴어’나 ‘커밍아웃’ 자체만을 중요하게 다루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가 퀴어를 ‘퀴어’라 호명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읽을 수도 있다. 개별적 존재로 권리와 역할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닌, ‘퀴어’라 호명되는 ‘다른 사람’으로 먼저 구분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인터뷰이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술가로서 원하는 세밀하고 깊이 있는 비평을 듣기 힘들다고 말했다.

퀴어 주제랄까, 본인을 드러내야 하는 걸 가져오는 순간, 살짝 엄숙해지는 분위기 있잖아요. 이것을 작품 자체로 바라보고, 방법론적인 걸 더 따지면서 깊이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퀴어에 대해’) 이야기한 용기를 인정한다로 끝나버리는 분위기가 있어요. 소재주의로 끝나버리는 거죠. (...) 커밍아웃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애들이 다 “대단하시네요” 이러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러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작품 자체를 두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박수를 보내고 끝나버리는 것. 그런 게 생기는 거죠. ‘퀴어’라는 소재가 중요해져버리는 것. (A)

전문적인 퀴어 예술 비평에 대한 목마름은 예술학교 내에서도 충족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

다. '퀴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주류로 상아탑의 꼭대기에 앉은 대부분의 교수진에게는 페미니즘적 관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는 퀴어 정체성을 드러내고 작업하는 교수를 만났으나, 그 또한 다양한 퀴어 정체성 중 일부로 존재하며 특수성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A를 포함한 교내 다수의 청년 퀴어 예술가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교수였다.

커밍아웃한 지도교수님을 선택해 작품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대개 완전히 형식주의적이거나 그 래요. 페미니즘은 퀴어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고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도 말하기 힘들 정도의 아저씨들인 거죠. (...) 페미니즘과 퀴어 자체가 소수인 만큼, 교수님들이 이미 많이 알면 주류성을 획득한 거잖아요. 퀴어인 저희 지도 교수님도 아무리 많이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가진 특수성과 한계가 있을 텐데, 그분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퀴어인데, 페미니즘을 이 정도도 모르시나?' 기대하게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A)

소개, 제작, 발표: 매순간 스스로를 설명하고 받아들여질까 거부당할까 고민하게 되는 일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을 하는 예술가의 경우, 자신의 삶과 작업이 구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과거 자신의 퀴어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D는 스스로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한 후부터 작업의 발화 방식, 관점, 태도 등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도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홀로 긴 시간이 필요했던 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화하는 작업 과정과 발화 방식, 내용도 내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D만의 방식은 스태프들을 모아 함께 의논하며 영상을 제작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랐기에, D는 어떤 방식과 포지션으로 동료와 작업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영화·영상 장르는 매번 불특정 다수의 관객 앞에서 작품을 공개해야 하기에 정체성에 대한 에세이 다큐를 찍고 있는 D의 입장에서는 작품 상영이 곧 매순간의 커밍아웃과 다름없는 셈이었다.

지금 작업은 조연출이나 프로듀서 없이 혼자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일단 제 작업을 드러내고 여기에 참여해달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마음이 제일 크고요. 이걸 어쨌든 저의 이야기인데 누군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어떤 포지션에서 저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구성을 다 짜냈고 촬영도 하긴 했는데, 에세이 다큐다 보니 뭐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제 상황이 바뀌면 내용도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작업과 너무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첫 애인과 최근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제 작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애인과의 시간을 거처온 나란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픈 마음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헤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상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단순히 지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억과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형식에 대해서는 '내가 보게 되는 세상의 파편들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해요. 그걸로 이야기를 어떻게 엮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어요. (...) 주변에 다 커밍아웃했고 그게 가능한 환경 속에 있지만, 영화가 완성되면 최소한 졸업 상영회에라도 걸리게 될 텐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려워요. 엄마한테는 말했는데, 아빠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졸업 상영회엔 가족들을 데려오는 학우들이 많잖아요. 가족이랑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어서 말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충돌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말하는 것들이 두렵고요. 제 영화를 본 사람은 제가 퀴어라는 걸 알 텐데, 이게 나중에 저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그게 좀 두려워요. (D)

각각이 가진 특이점과 창조성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

대다수의 청년 퀴어 예술가들은 영화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D의 경우처럼 스스로의 창작방식이 기존의 방식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선 B와 C의 경우처럼 창작-기획-플랫폼 등 창작 과정 전체를 작업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고민이 깊은 편이었다. 그러나 커밍아웃이 용이하지 않은 국내 환경 속에서 공개적으로 선배 퀴어 예술가의 사례를 들 수 있거나 동료 퀴어 예술가와의 대화가 가능한 자리를 찾는 일은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고 공통의 대안을 논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 청년 퀴어 예술가들은 이러한 고립 상황에서 각자의 발견과 관점을 담을 수 있는 미학을 찾는 동시에 그 미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발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예술가들 또한 취약한 환경 속에서 퀴어 예술가로서 가능한 창작 및 발화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었다.

저는 시하고 희곡을 쓰면서 평생 살고 싶어요. 시를 쓰는 것에 대한 여러 실험을 하고 싶고, 퍼포먼스도 시각화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기획까지 해서 플랫폼을 찾아다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요. 권력을 얻고, 상을 받고,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남성적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고, 즐겁고 편하고, 저는 그런 데서 충만함과 만족감을 느껴요. 여성이 관계 지향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네가 뭘 하든 좋을 것 같다고 믿어주는 동료가 많은 작업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전 야망이 작은 것 같아요. 한 번 공연할 때 100명이 오는 것보다 한 번 공연할 때 2~30명씩 오는 걸로 다섯 번 공연하는 게 좋아요. (B)

‘퀴어’라는 의미의 확장: 나를 발견하는 동시에 너를 발견하는 일

2014년에 개봉한 정주리 감독의 영화 <도희야>에는 의붓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소녀 ‘도희’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서울에서 외딴 바닷가 마을의 파출소장으로 좌천된 ‘영남’이 나온다. 불법 체류 중인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며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영 맨’으로 군림하던 의붓아버지는 영남이 자신의 수양딸인 도희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체류 중인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을 돌려준 이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려는 것이 마뜩잖아 영남이 도희를 성폭행했다고 거짓 고발을 하기에 이른다. 영화의 중후반부에는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진술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영남과, 도희의 의붓아버지의 고발로 불법 체류가 발각된 이주 노동자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경찰서의 감방에 갇힌 채 서로를 마주보는 장면이 나온다. 그 감옥의 바깥에, 여전히 도희를 폭행하고 있는 의붓아버지가 있었다.

저는 ‘퀴어’라는 말을 제 작품 창작할 동안은 ‘성소수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좀 더 확장시킨 의미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 제가 생각하는 확장된 의미의 ‘퀴어’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회 규범에 저항하는 존재인 것이죠. 때로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존의 가치를 심문하고 뒤흔드는 이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줘서 제 소설 속에 주인공으로 넣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짜거나 하는 식으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 ‘퀴어 이론 입문’이라는 루인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 장애학과 관련된 논문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사회 구조적 차별에 놓인 사람들이라면 퀴어든 퀴어가 아니든 공

유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의 육체를 다룰 때도 충분히 성소수자의 육체를 다룰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논문을 읽어봐도 그렇고요. 저는 루인 선생님의 ‘퀴어 이론 입문’을 통해서 퀴어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고려나 걸림돌 없이 ‘퀴어’를 확장된 의미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퀴어’라는 의미를 협소하게 사용하다 보면 제가 글을 쓸 거리들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 고민도 했고요. 퀴어의 범위를 그렇게 확장하면 제가 다룰 수 있는 소재도 많아지고, 계속해서 다음 작품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폭 넓게 쓰고 있습니다. (...) 제 글을 읽었을 때 독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상성’, 말하자면 규범 같은 것에 한 번쯤은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C)

C는 ‘퀴어 소설을 쓰는 작가’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예술가로, 공부를 하고 작품을 쓸수록 작품의 주요 주제인 ‘퀴어’의 의미가 자신에서부터 확장되어 더 폭넓은 범위로 번져갔다고 말했다. 퀴어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으로 이 사회의 규범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한 연결이 ‘퀴어’를 경유해 더 많은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다음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가 되게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물론 앞선 <도회야>와 같은 마주봄(‘퀴어’의 확장, 공감)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퀴어’라는 말이 사회적 소수자⁶⁾ 전반을 아우를 수 있다는 의제에는 어폐가 있다. 그러나 ‘퀴어’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차이’를 발견하고 포용하는 감각을 이르기도 한다. 스스로를 말하기 위해 시작한 공부와 창작으로 타인과 세상을 발견하게 된 C는 스스로가 퀴어라는 것을 밝히는 데 집중하기보다 작품을 읽은 독자들이 스스로와 세상에 질문을 던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III 결론

현재 ‘페미니즘’, ‘퀴어’에 대한 예술계의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으나, 기존 문화예술 정책과 시스템 내의 기본 문제점⁷⁾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재생산 시대’의 ‘퀴어’라는 불온한 시너지를 창작자와 플랫폼 또는 제도와 정책이 받아 안아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다양한 퀴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원하기 어려워 보인다. 심화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퀴어 예술가들은

- 6) 퀴어 활동가 한채운은 자신의 저서에서 “경계를 만들어 위반의 여부를 결정하는 건 개인이 아니라 사회다. 어떤 시대에는 동성애가 전혀 젠더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결혼이 연애가 아니라 중매였던 시절에는 이성애와 동성애의 구분이 지금처럼 심각하고 결정적인 의미가 아니었고 심각한 위반자는 혼외정사를 하는 이들이었다. (...) ‘재생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화두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자, 동성애자들은 국가와 가족, 공동체를 가장 위협적으로 위반하는 자들이 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한채운, 『레즈비언의 남성성: 공존, 반전, 경쟁, 갈등하는 젠더』, 권김현영 외,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모음, 2011, 135쪽(초판 3쇄).
- 7) “블랙리스트 그림자, 10년 넘은 독립예술 지원금까지 끊겼다” <미디어오늘>, 2017. 1. 17.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602>)
 “인기 일러스트 작가의 죽음... 예술이 밥 먹여주면 좋겠다” <오마이뉴스>, 2017. 6. 10.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332318)
 “청년예술가들이 말하는 생업으로서의 아티스트” <문화+서울>, 2017. 4. (www.sfac.or.kr/munhwapluscul/html/view.asp?PubDate=201704&CateMasterCd=800&CateSubCd=1238)

제도와 정책, 시스템의 개선을 기대하기보다 각개전투를 통해 발견한 스스로의 미학과 발화 방식을 세상과 만나게 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었다. 그 편이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 퀴어 예술가들 또한 예술계 동료나 관련 연구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비롯해 청년 퀴어 예술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플랫폼의 발견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련된 스터디 모임 같은 게 생긴다거나 (...) 페미니즘 관련해서 스스로 스터디를 꾸릴 수 있기도 한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느 정도 연구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강의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전문가들이 소수이기도 하니까 별로 없기도 하고요. 퀴어인문잡지 『빠라』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연구하시면서 글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퀴어’로 읽힐 수 있는 전시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거나, 그런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장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해줄 수 있는 매칭 시스템 같은 거 좋은 것 같아요. (A)

정리하면 그거네요. 여성·소수자 예술, 작은 예술에 대한 비평의 부재.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다들 나서는 거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작업자 입장에서 여성, 젠더 문제로 작업하는 것도 힘든데, 퀴어까지 붙는 순간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불안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다들 숨 돌릴 틈이 없어요. 돈 벌어야 되고, (...) 그래서 저는 최대한 페미니스트·여성·퀴어와 작업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주제가 아니라 작업자 대 동료로 의도적으로 더 편중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주변에 남성 작업자 친구들이 많고, 그들에게 부탁해서 뭔가를 하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의도적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예민한 주제로 작업하더라도 남성 작업자들이 좀 더 소재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든요. 저도 어느새 그런 속도가 반영된 언어를 쓰고, 그런 방식을 쓰더라고요. 결과물을 ‘뽐아낸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든 첫 번째 생각이 그거였어요. (...) 두 번째로는 작은 예술, 퀴어 예술가들의 작업을 계속 비평하는 작업을 저부터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예요. 글 쓰는 사람이 안 해주면 그걸 영화 찍는 사람이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더러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나부터 쓰려는 거죠. 제가 거울에 브런치나 홈페이지라도 만들어서 해보려고 했거든요. 의무라기보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겠다,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누가 제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관심 가져주니까 좋더라고요. (...) 여러 장르가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 퀴어 여성, 페미니스트 작업자,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을 저부터도 하려고 해요. (B)

서로를 주목하고 다르게 호명하기: ‘퀴어’ 네트워크·커뮤니티·플랫폼·정책의 필요성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해 다수의 예술현장과 예술지원 사업을 경험한 B는 지금 당장 퀴어 예술인, 소수자 예술 정책 등 포괄적 영역의 논의를 시작해 성급히 지원을 결정하기보다 퀴어 작업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과 서로의 작업을 읽어주는 동료 작업자 혹은 전문가 그룹의 형성, 퀴어 작업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이 우선순위라 본다고 말했다. 서로에게 곁을 내줄 수 있는 청년 퀴어 예술 공동체 혹은 네트워크 같은 지지기반을 만들어 가시화하고, 이후 청년 퀴어 예술가 각자의 삶과 연대체로서의 삶에서 원하는 지원 방식과 내용을 구체화해 제시하는 것도 좋겠다고 제언했다. 현재 D가 선정된 영화제처럼 ‘인권/젠더/예술’로 지원 분야를 나눠 제작을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기에 B의 제언은 많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볼 만하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 이야기했고, C도 말했듯 ‘퀴어’는 단순히 ‘성소수자’만을 이르는 것이 아

니므로, 인권·젠더·예술·다양성을 기반으로 소수자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 범위의 문화예술 정책을 상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올해 시행된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에도 여러 문제의식⁸⁾이 도출되었으며, 기존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의 조건이나 내용이 청년 퀴어 예술가가 지향하는 창작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선불리 포괄적 범주의 문화예술 정책을 상상하기는 이른 일인지 모른다.

파이 자체가 작아서 우리가 매일 이 안에서 이응다옹하잖아요. 제도에는 체계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같고,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선부르게 말할 단계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 나부터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성 이자 작업자로서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일까?’를 언어화해보고 있거든요. 저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점은 저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해주신 것처럼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예요. 그리고 서로 간 비평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웹진 같은 플랫폼이 많이 생기는 게 좋아요. 저처럼 작품에 대한 관심과 비평이 적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평 작업이 너무 없으니 비평 작업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이게 결국 나한테 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필요한 건 창작·공간 지원금이 아니라 비평 작업이예요. 작품 봤는데 그런 게 부족해보이더라고 말해주고, 글을 써주고, 웹진 등이 있어서 배포될 수 있는 거요. (...) 퀴어 여성으로서, 작은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 작업에 대한 비평과 동료예요. (B)

지금 그냥 청년 예술가 사업도 어려운데,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고려한 지원 사업이라……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해주는 게……. 정말 모르겠어요. 그게 실제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해 상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제가 퀴어 문화 서점을 운영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일단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자체적으로 이것저것 해보자는 말이 나올 테니까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면 적어도 서울 지역에서만큼은 퀴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도, 들를 수도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중 하나가 제가 하고자 하는 퀴어 문화 서점일 수도 있고요. 물론 저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돈도 없고요.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많고, 그걸 해보고 싶은데,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눌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다가……. (C)

예술가로서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정책과 제도 앞에서

대다수의 청년 퀴어 예술가들은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청년 예술가에게 예술 지원 사업의 첫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는 서울문화재단의 ‘최초예술지원’이나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지원금(또한 올해 논란이 있었다⁹⁾) 수혜를 받아본 적 없으며, 예술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증명’에 대해서도 들어본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¹⁰⁾ 설령 그런 지원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 같

8)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표표사사>, 2017. 2. 6. (<http://ppss.kr/archives/99626>)

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접수에 ‘로그인 순서’로?” <경향신문>, 2017. 9. 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81333001&code=960100)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지원금 서버 다운사태’는 ‘인재’” <뉴스1>, 2017. 10. 19. (<http://news1.kr/articles/?3128863>)

10) 연구자가 인터넷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전체 응답자 중 54.8%, ‘예술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해본 적이 없다’ 전체 응답자 중 61.3%.

은 사람'에게는 선정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퀴어 창작자들이 많았으며, 또한 공모전이나 지원 사업에 탈락한 이후, 자신의 작품이 문제인지, 정체성이 문제인지 피드백을 들을 길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퀴어 예술가들의 지원 사업 선정은 작품으로서의 인정 외에도 자신의 정체성·젠더·활동에 대한 지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여러 제한조건(저작권, 심사와 선정 과정, 연구 외 노동활동 불가 등)¹¹⁾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의 특성상 '순간'뿐인 경우가 많았다. 상금 형태의 소정의 창작지원금을 받은 후의 후속연계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엔 '영진위에서 (정체성을 다룬) 에세이 다큐를 지원해줄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EIDF나 DMZ 영화제 같은 경우는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고요. 저는 피칭을 최대한 조용히 하거나 안 하는 곳에 넣고 싶었어요. 영화제에서 작업을 프리미어로 들어가 된다고 말하는 제작지원은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지레짐작해서 '안 뽑아줄 거야' 생각했던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작지원 신청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친구가 '이 공고 봤는데 네가 생각났어'라고 말해준 제작지원 공고가 있어서 신청서를 냈는데, 다행히 적은 돈이지만 지원금을 받게 됐어요. 이 제작지원은 지원할 때 인권/젠더/예술 중 선택할 수 있게 카테고리가 나뉘어 있어요. 거기서 귀 기울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제 작업이 그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고민이나 진정성 같은 게 좋아서 뽑아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술적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하려는 이야기를 더 먼저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최소한 심사위원들은 내 영화를 보고 싶어한다. 누군가는 궁금해한다.' 이게 저한테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D)

가능성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일: 지지기반 구축

보다 적극적이고 섬세한 기획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 '퀴어 정체성'을 구분 지점으로 둘 것인지, '퀴어 미학'을 구분지점으로 둘 것인지 등을 두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이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사전 논의를 충분히 나눈 뒤 다양한 범주를 포괄할 수 있다면 '퀴어 예술가 네트워크' 구성은 필요한 과정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퀴어처럼 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을 자기 작품과 연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누군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예전에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 설명회 끝나고 네트워킹 파티를 했던 건 기억나요. '서로 관심 있는 사람끼리 알아서 만나세요' 하고 놔두면,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집에 가버렸거든요. 물론 저 말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단순히 자리만 만들어놓는 것 외에 그 사람들이 올 만한 행사를 기획하고, 비슷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등 주최 측의 섬세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행사가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래 지속되어서 실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네트워킹 파티'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들었는데, 예술가들끼리 교류가 필요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예술가 본인들이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의

11)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문제 제기 있어" <문학신문>, 2016. 4. 15.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

지는 없는 것 같아요. (C)

자생력을 갖고 함께 사는 일: 공동 프로젝트와 다장르·다정체성 융합과 만남

경제적 여유가 넉넉지 않은 대개의 청년 퀴어 예술가들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쉽 없이 노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B는 그러한 악순환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청년 퀴어 예술가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형성 외에도 ‘빈공기’ 시즌에 함께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 기획과 공동 플랫폼(웹페이지, 펀딩 프로젝트 등) 구축을 제안했다. 청년 퀴어 예술가의 다장르·다정체성 간 만남과 융합이 서로를 살리는 시너지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청년 퀴어 예술가 각자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지지기반을 고민함과 동시에 함께 사는 일의 가능성을 ‘지금’ 실천해볼 수 있는 시도를 상상하는 일이 필요해 보였다.

우리는 각자가 다 자기 개인 작업에 너무 몰두해 있잖아요. 일하고 작업하고 일하고 작업하고 항상 그런 패턴이니까요. 저도 좀 여유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요. 불안한 삶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지금 벌 내놓지 않고 계속 거절하면 다시 일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재미있는 작업적 제안은 거절할 수 있어도 돈과 관련된 것들은 거절을 못 해요. 나를 책임지는 게 나잖아요. 프리랜서의 불안정한 삶에 계속 뭔가를 거절하는 건 어려운 거죠. (...) 이런 게 너무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못 느끼고 있었어요. 겨울 오면 빈공기 다가오잖아요. 그럼 4~5월이나 되어야 뭐가 입금되거든요. 그럼 지금 엄청 벌 내놓아야 돼. 구체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동절기 프로젝트를 많이 해야 한다고. 11월에 공모가 한 번 뚝 떨어지면 좋겠어요. 그때야 좀 쓸 시간이 되니까, 괜찮지 않아요? 11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4개월마다 한 번씩, 3분기로 진행하는 거죠.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안정적인 원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B)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청년 퀴어 예술가의 실천

그리고 이미 시작하고 있는 예술가들¹²⁾이 있다. “한밤중에 다들 두려움에 떨며 숲을 가로지르니까 말까 논의하는 사이 혼자 도주해 숲을 건넌 한 어린아이”¹³⁾처럼, 고민하고 머뭇거리기 전에

12) 각주에 채 담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프로젝트와 전시, 공간들이 있었으므로 이곳에는 2017년 기준 작업들 위주로 축약해 기록했음을 알린다.

한국퀴어문화종합플랫폼 ‘무지개책갈피’ (<http://rainbowbookmark.com/>)

“가족 내 성폭력 자전 소설로 풀어낸『코끼리 가면』노유다 작가: ‘코끼리가 돼 당당하게 살아남을 거예요’” <여성신문>, 2016. 11. 16. (<http://www.womennews.co.kr/news/99610>)

“성소수자가 직접 전하는 무지개빛 목소리들...‘퀴어 출판’이 늘어나고 있다” <경향신문>, 2017. 9. 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62106015&code=960205)

“현대 게이를 위한 당당한 양지 ‘햇빛서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 12. 9. (http://www.huffingtonpost.kr/chingusai/story_b_8726170.html)

햇빛서점은 LGBT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서울시 용산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간 및 예술가들과 ‘하이파이브’라는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드래퀸 낭독회 ‘The Library is Open’를 열거나 FRECKLES와 함께 ‘햇빛총서’ 시리즈 1권으로 『목사 아들 게이』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드래퀸이 읽어주는 성소수자 그림책 ‘공치’ 시리즈” <닷페이스> 2017.10.17. (youtu.be/B1QaTv035VI))

13) 최근 출간된 김혜진 장편소설 『딸에 대하여』(민음사, 2017)의 추천사에서 강영숙 소설가가 한 말이다. 『딸에 대하여』는 요양보호사인 엄마가 레즈비언인 딸과 딸의 동성 연인인 ‘레인’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다.

이미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청년 퀴어 예술가들이 있었다. 퀴즈는 많은 이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곁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이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를 마친 후에도 사전 설문조사 및 심화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퀴어 예술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전시, 포럼 등을 찬찬히 준비해보려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준다면 좋겠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된 질문이 더 멀리 퍼지길 바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걷는 청년 퀴어 예술가들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 그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단단한 땅으로서의 문화예술정책과 제도 마련 또한 중요할 것이다. 퀴즈는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 여성학자 박이은실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분법적 사고의 틀 속에 갇히게 되면 틀 밖의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선포되게 된다. 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힘, 그리하여 틀지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 볼 수 있는 자유, 초월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 그것이 (...) 유연하고 유동적인 자아경계를 가지고 있는 횡단적 주체들이 제시하는 정치적 제안이며 도전일 것이다”라고 말한다.¹⁴⁾ 이곳에 기록한 이야기들이 추후 ‘청년 퀴어 예술가’ 및 청년 예술가 정책과 ‘소수자 문화예술 정책’의 작은 땅이 되어준다면 기쁘겠다. 우리는 각자의 땅이 연결되도록 오래 걸을 것이다.

14) 박이은실, 『양성애: 열두 개의 퀴어 이야기』,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7, 336쪽.

【단행본】

- 권김현영 외,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모음, 2011.
- 김주원, 「퀴어 미술에 나타난 성 정체성과 그 사회적 의미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16.
- 김혜진, 『딸에 대하여』, 민음사, 2017.
- 마리타 스테르큰 · 리사 카트라이트, 『영상 문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 2012.
- 박이은실, 『양성애: 열두 개의 퀴어 이야기』,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7.
- 애너매리 야고스, 『퀴어이론』, 박이은실 역,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2.

【신문기사】

- 경향신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접수를 ‘로그인 순서’로?”, 2017. 9. 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81333001&code=960100
- 경향신문, “성소수자가 직접 전하는 무지갯빛 목소리들...‘퀴어 출판’이 늘어나고 있다”, 2017. 9. 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62106015&code=960205
- 뉴스1,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지원금 서버 다운사태’는 ‘인재’”, 2017. 10. 19. <http://news1.kr/articles/?3128863>
- 문학신문,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문제 제기 있어” <문학신문>, 2016. 4. 15.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
- 문화+서울, “청년예술가들이 말하는 생업으로서의 아티스트”, 2017. 4. www.sfac.or.kr/munhwaplus/seoul/html/view.asp?PubDate=201704&CateMasterCd=800&CateSubCd=1238
- 미디어오늘, “블랙리스트 그림자, 10년 넘은 독립예술 지원금까지 끊겼다”, 2017. 1. 17.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602>
- 여성신문, “가족 내 성폭력 자전 소설로 풀어낸 『코끼리 가면』 노유다 작가: ‘코끼리가 돼 당당하게 살아남을 거예요’”, 2016. 11. 16. <http://www.womennews.co.kr/news/99610>
- 오마이뉴스, “인기 일러스트 작가의 죽음... 예술이 밥 먹여주면 좋겠다”, 2017. 6. 10.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332318
- 포포스,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17. 2. 6. <http://ppss.kr/archives/99626>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현대 게이를 위한 당당한 양지 ‘햇빛서점’”, 2015. 12. 9. http://www.huffingtonpost.kr/chingusai/story_b_8726170.html

사전 설문조사 질문 목록

A. 기본정보: 소개해주세요.

1. 이름
2. 나이
3. 연락처(기프트콘 발송 및 심화인터뷰를 위한 연락에 필요합니다)
4. 정체성
5. 재학 여부: 예술학교, 예술대학/일반대학/비제도권 학습 집단/아니오
6. 주요 활동 지역: 서울/경기-수도권/강원/전라/경상/충청/제주/국외
7. 작업 분야: 국악/무용(퍼포먼작업스)/문학/미술/사진/영상/연극/음악/기타
8. 세부장르

B. 젠더-섹슈얼리티와 생활 공간

학생이라면 1번으로, 학생이 아니라면 2번으로 가서 대답해주세요.

1. (학생일 때)

- 학교 동아리나 학과, 수업에서 커밍아웃한 경험이 있나요? 예/아니오
- 커밍아웃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커밍아웃 후 곤란하거나 불편한 일이 있었나요? 예/아니오
- 커밍아웃 과정에서 혹은 이후 곤란하거나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 알려주세요.
- 퀴어 정체성을 반영한 작업을 할 때 교수, 선배 및 동료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받고 있나요? 예/아니오
- 아니라면,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예술가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예/아니오
- 커밍아웃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커밍아웃하지 않은 상태에서, 퀴어이기에 느꼈던 불편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 커밍아웃 할 계획이 있나요? 예/아니오

2. (학생이 아닐 때)

- 주로 작업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개인작업실/공동작업실, 레지던시 프로그램/집/기타
- 작업하는 공간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커밍아웃한 경험이 있나요? 예/아니오
- 커밍아웃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커밍아웃 후 곤란하거나 불편한 일이 있었나요? 예/아니오
- 커밍아웃 과정에서 혹은 이후 곤란하거나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 알려주세요.
- 퀴어 정체성을 반영한 작업을 할 때 동료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받고 있나요? 예/아니오
- 아니라면,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예술가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예/아니오
- 커밍아웃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커밍아웃하지 않은 상태에서, 퀴어이기에 느꼈던 불편은 무엇인가요?
- 앞으로 커밍아웃 할 계획이 있나요? 예/아니오

C. 퀴어 정체성과 작업

1. 자신의 젠더나 섹슈얼리티, 퀴어 정체성이 본인의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예/아니오
‘예’의 경우-자신의 정체성이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 작품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커밍아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예/아니오
‘예’의 경우-커밍아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퀴어 관련 주제로 작업을 하므로/ 직접적 관련 없지만 나(작가)의 삶과 작업(예술작품)은 분리해 생각할 수 없으므로/ 작품활동이 무브먼트의 일환이므로/ 고독한 작업을 지속하는 데 친교적 필요가 있으므로/ 업계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기타)
3. 예술 작업을 하는 주변의 동료들 중 퀴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아니오
-있다면, 그 동료가 당신에게 직접 커밍아웃을 했나요? 예/아니오
-커밍아웃하지 않았다면, 그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동료와 함께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을 나눈 적이 있나요? 예, 퀴어인 동료와 함께/ 예, 퀴어는 아닌 동료와 함께/ 아니오

D. 예술관에 대해

1. 예술가와 그의 작품/작업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예/아니오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왜인가요? (작업이 작가에게 귀속될 수는 없다는 예술관/ 작업의 스펙트럼 혹은 다양성 때문에/ 작가의 권위가 전면에 드러나면 개별 작업의 주목도가 떨어지므로/ 기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인가요?
2. 당신의 퀴어 정체성은 예술 작업을 하는 동기가 되나요? 예/아니오
-당신의 퀴어 정체성과 작업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나요? (매우 밀접/ 어느 정도 관련있음/ 의견없음/ 어느 정도 거리를 둬/ 매우 거리를 둬)
-퀴어로서의, 혹은 퀴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3. 당신의 작업물과 작업과정을 지인에게 어느 정도로 공개할 수 있나요? (예술계 동료나 같은 분야 지인까지 공개/ 개인적 친구까지 공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절대 비공개/ 기타)
4.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이하 선택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 환경과 정서적 안정에 대해

1. 당신은 작업과 관련해 주로 활동하는 장소나 특정 모임, 단체, 지역을 선택했나요? 예/아니오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작업하는 데 커뮤니티나 또래집단은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요? (절실하다/ 있으면 좋다/ 상관없다/ 없어도 무방하다/ 백해무익이다/ 기타:)

3. 작업하면서 고립감이 가장 크게 드는 때는 언제인가요?

4. 동료 퀴어 청년 예술가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심리적 의지가 될 것 같나요? (매우 많이 의지됨/ 어느정도 의지됨/ 있건 없건 상관없다/ 조금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F. 당신의 작업에 대해

1. 당신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나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현재 하는 작업은 당신의 퀴어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나요? 예/아니오

-작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공간, 재정, 인적자원 등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추후에는 어떤 작업을 하고 싶나요?

G. 예술 지원정책에 대해

1.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예/아니오

-그렇다면, 그 정보는 어디에서 얻나요? (동료/친구나 지인/ 학교/ 인터넷)

2. 예술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해본 적이 있나요? 예/아니오

-있다면, 어떤 사업이였는지 알려주세요. (예: 2017 청년허브 자기 삶의 연구자 공모)

-있다면,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매우 만족/ 어느 정도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지원사업을 받는 데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지원해본 적이 없거나 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 당신의 작업 분야나 세부 장르에서는 특히 어떤 지원사업이 필요한가요? (금전적 지원/ 전시 연극 등공간 제공/ 멘토링/ 기타:)

4. 한국의 청년 예술가 지원 정책에서 젠더나 섹슈얼리티 정체성이 고려되고 있다고 느끼나요? (매우/ 어느 정도 / 보통/ 별로/ 매우 고려 안 됨)

-('어느정도' 이하 선택 시) 어떤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젠더 섹슈얼리티 정체성과 관련한 청년 예술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예/아니오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필요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청년', '퀴어', '예술가' 이 세가지 범주를 함께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예/아니오

-그 세 가지 범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나요? 예/아니오

-있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 알려주세요.

-그 세 가지 범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나요? 예/아니오

-있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 알려주세요.

H. 지속가능한 예술과 미래에 관해

1. 롤모델 혹은 멘토로 삼고 있는 예술가가 있나요? 예/아니오

-있다면,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퀴어 정체성이 예술가로서의 미래 계획에 영향을 미치나요? (매우/ 어느 정도/ 보통/ 별로/ 전혀)

-아웃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작업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나요? 예/아니오

-당신이 청년이자 퀴어이자 예술가로서 작업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3. 지금까지의 질문 외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